

나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기

# 표준화의 첫걸음, 기고문

이현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 이동통신 PD, TTA PG 701/709 의장

1996년 2월 아직 찬 바람이 바지자락을 스치고 있는 겨울 막바지 즈음에 생애 처음으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를 포함한 한국 대표단 3명은 (회사 2명, 연구소 1명) 미국 플로리다 주의 클리어워터로 출발했다. 이름하여 ITU-R TG8/1(Task Group 1 of Study Group 8) Radio Evaluation(REVAL) Ad Hoc Group.

지금은 IMT-2000으로 바뀌어 불리지만 당시에는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하는 자음으로만 구성된 부르기 어려운 이상한 이름의 제3세대 이동통신 규격준비회의였다. 당시에는 ITU-R에서도 3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주파수 및 일정 정도까지만 정해져 있었고, 현안 사항으로 향후 제안될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건지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두고 주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일 때였다. REVAL Group 의장은 미국 FCC에서 맡고, 부의장은 유럽의 France Telecom과 일본의 ARIB에서 각각 분담하고 있었지만 기술적 논의의 전반적 주도권은 1984년부터 RACE I/II, ACTS 등의 범유럽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온 유럽 쪽에 넘어가 있었다. 반면 미국은 CDMA(IS-95) 기술을 기반으로 겨우 부분적으로만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은 일정, 추진전략 등 비기술적인 분야의 논의에 겨우 발을 들여 놓고 있는 정도였다.



당시 TTA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합동작업반을 막 구성하여 겨우 국제표준화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단계였을 뿐인데, 한국에서도 3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적 논의에 참석하고 향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을 받고 미국으로 향한 한국대표단의 가슴은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자로서 나도 빨리 입지를 구축해야지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전 준비없이 국제표준화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발언하기 전에 손을 들고 먼저 의장에게 발언권을 부여 받는 절차도 신기했고, 발언하기 전에 항상 "Thank you, Mr. Chairman."을 붙이는 에티켓도 생소하지만 재미있었다.

다행히 기술적인 논의내용은 나의 지식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channel model, link budget, cell configuration, decision criterion 등이어서 회의 첫날 동안 다른 나라의 기고문을 몇 개 읽어보니 논의의 줄기를 대강 찾아갈 수 있었고 다행히 몇 가지 문제점도 파악이 되어 회의에서 제기하리라 마음먹을 수 있었다.

드디어 둘째 날 아침 회의 때 나는 당당하게 의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했고 의장은 처음 보는 젊은 동양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참 내려다보더니 "Gentleman, please."라고 발언권을 주었다. 나는 첫째 날에 어깨너머로 배운대로, "Thank you Mr. Chairman, This is LEE HyeonWoo of Samsung Electronics from Korea, I have questions on page number XX of document number YY. Considering ZZZ, this figure does not align with~~~~" 등을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굴러가며 열심히 영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표정이 영 생똥맞아 하는 눈치이더니 장황한 발언이 끝나자 의장이 질문했다.

"Do you have any contribution for this?"

"????"

"Please BRING CONTRIBUTION from next time, Let's go on to next one."

이렇게 하여 나의 첫번째 국제표준화 무대 데뷔는 무참히 목살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부랴부랴 다른 기고문을 찬찬히 분석하면서, 기고문의 구조, 용어, 절차 등을 습득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해 4월에 독일 Mainz에서 열린 TG 8/1 정규회의에서는 간단하지만 정식 기고문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조그만 drafting group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미국 클리어워터에서의 목사발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다음부터는 ARIB, ETSI, TTA에 등에서도 당황하

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에피소드 하나.

그때만 하더라도 종이기고문과 함께 OHP가 같이 사용되던 때인데, 몇 달 후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표준 협력회의에서 같이 참석한 동료들이 주로 말로 주고받는 논의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OHP에 뭔가를 열심히 쓰더니 스크린에 띄웠다. 내용인 즉 "회의 논의는 기고문을 바탕으로 진행하자."였다. 그걸 보던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걸 OHP로 설명하지 말고 기고문으로 가져오지..."였다. 

